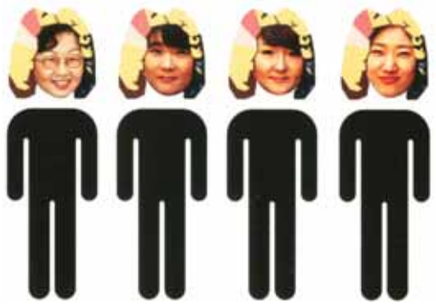
바흐 탄생 330주년 하루 전날



피아노 앙상블 클라노바 음악회…20일 금호아트홀

올해는 바흐(1685~1750) 탄생 330주년이 되는 해다. 바흐의 생일 하루 전인 오는 20일(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의미있는 연주회가 열린다.

'바흐 탄생 330주년 하루 전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김정아(광주대 음악학과 교수)씨와 제자 임인수·김형미·김혜진씨로 구성된 피아노 앙상블 클라노바가 함께 한다. 임인수씨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후 현재 광주대에 출강중이며 김현미씨는 독일 아헨 음대, 독일 뮌스턴국립음대에서 공부했다. 김혜진씨는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수학했다.

연주 레퍼토리는 바흐가 하프시코드를 위해 쓴 7개의 토카타 중 'c단조 작품 911번' , 'e단조 작품 914', 'g장조 작품 916', '이탈리안 콘체르토', '파르티타 2번' 등이다.

피날레곡은 4명이 두 대의 피아노로 함께 연주하는 곡 '오케스트르라 모음곡 3번'이다. 서곡, 아리아, 가보트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아리아는 유명한 바이올린 독주곡 'G선상의 아리아'로 많이 알려져 있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휴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쉼'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서양화가 김영화씨가 다음달 2일까지 SBI저축은행 광주지점 갤러리(동구 금남로 유광빌딩 1층)에서 '일상의 희망을 품고'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김씨는 우리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소소한 희망과 행복을 부드럽고 온화한 색채의 작품으로 이야기한다. 가족과 평범한 이웃들의 일상, 그리고 여행길에서 만난 다양한 풍경들을 작품에 담았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그린 '고향 가는 길목'에서는 정겨운 우리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선술집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 도란도란 둘러앉은 가족,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는 이들까지 모두가 평화롭기만 하다. 캠핑장을 찾은 가족, 함께 산을 오르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휴가'도 인상적이다.

조선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신조형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남부대에 출강하고 있다.

문의 062-420-010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삶에 쉼표가 필요하다면

SBI저축은행 광주지점 갤러리
내달 2일까지 김영화展

요시토모 나라 작 'Doggy Radio'

채용신 '화조영모도 8폭 병풍' 경매 나와

A-옥션, 18일까지 270점 출품

전주의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 (주)A-옥션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채용신 등의 작품을 판매하는 경매를 진행한다. 이번 경매는 50~200호까지 대작 등 총 270점이 출품된다.

주목할만한 작품은 근대 초상화의 대가 석지 채용신(1848-1941년)의 '화조영모도 8폭 병풍'이다. 지난 200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석지 채용신 서거 60주년 기념전'에 선보이는 등 현재 2점 밖에는 없는 작품이다.

8폭에 강아지, 토끼, 닭, 독수리, 원숭이, 학 등 다양한 동물과 새가 화려한 꽃들과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채용신만의 세필묘사가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

또 일본 네오 팝 세대의 대표작가 요시토모 나라의 'Doggy Radio'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작가가 30년 동안의 작품활동 중 음악과 미술을 병행하며 혼합할 방법 고민해 제작한 작품이다.

고 하반영 화백의 '바루비종의 언덕'(50호)과 '모란'(8호)도 눈여겨볼 작품이다.

이번 경매는 A-옥션 홈페이지(www.a-auction.co.kr)를 통해 진행되며, A-옥션 전시장(전주시 경원동)에서 작품 감상 및 현물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02-725-8855.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얼굴없는 가수' 다크 테너 데뷔 앨범 국내 발매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다크 테너의 데뷔 앨범 '심포니 오브 라이트'(Symphony of Light)가 국내 정식 발매됐다고 유니버설뮤직이 11일 밝혔다.

같은 앨범으로 지난해 독일에서 데뷔한 다크 테너는 검정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하며 하노버 소년 합창단과 드레스덴 십자가 합창단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외에 이름, 나이, 출신 등 신상정보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아 화제가 됐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에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클래식 레퍼토리에 다크 테너가 직접 쓴 가사와 비트, 음향기술을 접목해 재탄생한 14곡이 담겼다.

이 가운데 국내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히트곡 '리버 플로즈 인 유'(River Flows in You)를 편곡한 '리버 플로즈 온 디 에지'(River Flows on the Edge)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루마가 국내서 직접 녹음한 연주를 보내고 곡에 대한 아이디어를 의논하는 등 편곡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루마의 로맨틱한 연주에

다크 테너의 웅장한 목소리가 더해져 원곡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고 유니버설뮤직은 소개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과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등 대중적인 클래식 레퍼토리도 다크 테너와 프로듀서 베른드 베들란트의 편곡을 거쳐 재탄생했다.

유니버설뮤직은 "정통 클래식을 어려워하거나 색다른 음악을 찾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직 기자들이 쓴 우리 농업 생존법

임현우·김금희 '대박농사…' 펴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값싸고 농약투성이인 수입 농산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FTA를 대비하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을 제시하는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전직 기자였던 임현우(농민신문)·김금희(전남매일) 씨가 펴낸 '대박농사, 꿈은 이루어진다'(농민신문사)는 현장의 이야기를 사진과 만화를 곁들여 생생하게 전달한다.

제1부는 젤라틴·키틴분해 미생농물법을 다룬다. 농업인이나 소비자 모두 동경하는 농사법인 미생농물법은 많은 이들이 선호하지만 실패하기도 쉬운 농법이다. 저자들은 젤라틴·키틴분해 미생농물법

은 값이 싸고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자가배양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2부는 농가의 사례를 다룬 것으로, 미생농물법을 활용해 억대 부농 반열에 오른 농민들과 지역 농협, 해외사례를 정리했다. '꿈의 농법'이라는 찬사에 맞게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자체 협력사업 아이템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저자 김금희 씨는 "경제부 농협 출입기자 시절 수많은 농가들이 젤라틴?키틴분해 미생농물법으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보고 책을 쓰게 됐다"며 "기술된 사례들이 농도 전남이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나아가는데 일조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사랑티켓 사업 수혜자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 서영진)은 2015년 사랑티켓 사업에 참가할 문화예술단체 작품과 수혜자를 모집한다.

2015년 광주지역 사랑티켓사업 지원금은 8260만원으로 문화취약계층에게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혜자들은 연령과 장르(공연·전시)에 따라 최소 3000원, 최대 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랑티켓 지원대상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www.sati.or.kr)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랑티켓 홈페이지에 등록된 다양한 장르(뮤지컬·연극· 무용·아동극·전통·전시 등)의 공연 및 전시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사랑티켓사업을 통한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지원 횟수는 수혜자 개인은 연간 10회로 제한되며 각 1회 예매 시, 본인포함 총 4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수혜자 단체는 연간 1회에 한해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랑티켓사업 참가 작품은 현재 사랑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매월 첫째주 금요일)받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작품을 선정한다. 문의 062-670-7913.

/오광록기자 kroh@